

조합소식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3차 총회(임시) 개회사

# ‘신뢰받는 보증기관 확립’으로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이영식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시작되는 이때, 여러분을 모시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3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회에 참석하시어 성황을 이루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현재의 건설시장은 건설경기 회복지연 및 내수경기 부진 등 많은 어려움속에 있지만, 새롭게 재편되기 위한 변화의 중심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설비건설업은 하루가 다르게 복잡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조합은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의 더 큰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조합원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고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합원 편익중심의 경영과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하여 조합원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조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조합 임직원들은 조합원의 성공이 조합의 발전이라는 신념하에, 조합원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조합 창설당시 조합원사는 2,960개사 이었으나, 2006년 12월말현재 5,325개사로 80% 증가 하였으며, 자본금도 1,500억원에서 2,599억원이 증가한 4,099억원으로 173%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대의원님 여러분과 조합원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합 운영에 내실을 기하므로서 조합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확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 조합소식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조합은 올해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경영 목표를 “신뢰받는 보증기관 확립”으로 정하여 임·직원들은 조합원 편익중심 경영을 위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개선과 인력의 정예화·전문화를 통한 내부 역량 강화에 주력하여 경쟁력있는 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소하는 살아 움직이는 조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보증수수료 요율을 대폭 인하여 조합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25억원 경감한 바 있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어려움과 건설생산체제 개편 등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보증수수료 요율을 추가로 대폭 인하여 조합원사의 연간 보증수수료 절감금액은 약 20억원이 경감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달청 전자보증(G2B) 외에 조합원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작년부터 일부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조합원사가 조합이나 보증 채권자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보증서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보증 시스템(B2B)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도모 함으로써 조합원 여러분께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오늘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잠시 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6년도 경영성과 보고겸 결산서(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익은

영업수익이 110억 5천만원,  
영업외 수익이 103억 2천만원으로  
합계 213억 7천만원 입니다.

- 비용은

영업비용 167억 1천만원,  
영업외비용 1억 1천만원으로  
합계 168억 2천만원 입니다.

- 따라서 경상이익은 45억 5천만원이고,  
동 이익금에서 법인세 20억 4천만원을 공제하면  
순이익은 25억 1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결산결과 당기 순이익 25억 1천만원은 조합원사의 지분액에 반영하여 좌당 5천 5백 9십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세무조정과 조합 감사의 감사를 거쳤으며,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조합원과 조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조합을 후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조합 모든 임·직원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내빈과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에도 조합원사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더욱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2. 2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영식

조합소식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3차 총회(임시) 축하

# 성공적인 사업수행으로 조합 가치 상승, 설비건설업계 발전 토대 마련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오늘 우리 조합 제23차 총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부 손명선 팀장님과 정승일 명예회장님, 홍평우 명예회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축하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조합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업계는 지난 한해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정부의 법개정 추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위기가 곧 기회' 라는 말처럼 우리업계의 단결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 기계설비가 건설업의 4대 중요공종 중 하나라는 특성을 대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조합은 '조합원과 하나되는 조합' 이 되기 위하여 보증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신용거래 제도 도입 등 조합원사의 실질적인 경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넓혀왔고, 원스톱 서비스 확대와 IT서비스 혁신, 신용평가 모델 개선 등 조합원사의 업무편익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조합이 조직의 효율화, 전문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을 통해 업계의 발전과 안정적 경영지원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조합경쟁력 강화' 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조합은 경영목표인 '신뢰받는 보증기관 확립' 을 위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개선 및 임직원의 역량 강화, 건전한 재무구조 확보를 위한 각종 수익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의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조합원의 출자지분 가치가 상승하고 이익이 환원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 업계의 발전 토대 또한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 여러분들은 '신뢰받는 보증기관 확립' 이라는 올해의 경영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합의 총회를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대의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2월 23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 종 학

조합소식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3차 총회(임시) 개최



**대한** 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영식)은 지난 2월 23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의원 및 정부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총회(임시)를 개최하고 2006년도 경영성과 보고 겸 결산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2006년도 경영성과 보고겸 결산서(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 수익 : 213억 7천만원(영업수익, 영업외수익)
- 비용 : 168억 2천만원(영업수익, 영업외수익)
- 경상이익 : 45억 5천만원
- 순이익 : 25억 1천만원
- 2006년도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 25억 1천만원을 조합원사의 지분액에 반영하여 좌당 5천5백9십원을 인상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이영식 이사장은 “국내외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2006년 12월말 조합원 5,325개사, 자본금 4,099억원으로 성장하였고, 2006년도 보증수수료 요율을 대폭 인하하여 조합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25억원 경감시킨바 있고, 금년에도 보증수수료요율을 대폭 인하하여 조합원사의 연간 보증수수료 절감 금액은 약 2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007년 역시국내외 건설경제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긴축경영을, 외부적으로는 영업활동 창출 및 신용거래를 통한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로 내실경영의 기초를 삼겠다.”고 밝혔다.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조합은 「조합원과 하나되는 조합」이 되기 위하여 보증

조합소식



▲ 이영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경영 및 영업활동 창출,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로 내실경영의 기초를 삼겠다”고 밝혔다.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개선 및 수익사업 추진 등으로 우리업계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비상임감사에 김경호 한경기전(주) 대표이사와 안태환 상임감사를 연임시켰다.(사진은 김경호 비상임감사)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신용거래제도 도입 등 조합원사의 실질적인 경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넓혀왔고, 원스톱 서비스 확대와 IT서비스 혁신, 신용평가모델 개선 등 조합원사의 업무편의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올해도 조합은 경영목표인 「신뢰받는 보증기관 확립」을 위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

개선 및 임직원의 역량 강화, 건전한 재무구조 확보를 위한 각종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업계의 발전에 토대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 감사에 김경호 한경기전(주) 감사가, 상임감사에 안태환 감사가 연임되었다. 🌈

## 성공 찾기

제주영업소 오 상 환

“너, 오늘 성공했니?”

얼마 전 TV 드라마 ‘황진이’에 출연한 여성 연기자들의 인터뷰 방송을 본 기억이 난다. 밤샘 촬영과 잦은 이동, 불규칙한 식사로 소화기능이 많이 안 좋아진 그녀들은 “너, 오늘 성공했니?”가 서로 간의 안부를 묻는 아침 인사이고, 불일을 원만하게 본 사람(성공한 사람)을 서로가 축하해 준단다.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불일을 보는 것도 중요한 성공이 될 수 있구나…….

그렇다. 성공의 가치와 의미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사회 초년병인 20대, 가정을 꾸려가는 30대, 조직의 중추인 40대, 인생을 음미하는 50대……. 나이와 성별에 따른 성공 목표가 다르듯이 각자 개인의 성공 기준 또한 대단히 큰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성공을 주제로 다루는 많은 책들의 공통점은 “성공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원대한 계

획을 세우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공의 메아리와 같다. 결국 행동을 하지 않는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마쓰시다 그룹의 고(故)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이렇게 회고했다고 한다. “나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가난했기에 어려서부터 구두닦이, 신문 팔이 등 세상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 몸이 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서 늙어서도 이렇게 건강하며, 셋째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였기에 세상 사람들을 모두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언제나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丁亥年)은 60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띠라고 마스크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것이 벌써 오랜 과거의 일처럼 느껴진다. 올해 나의 계획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개인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서 실천하기로 다짐해본다. 

